
		보 도 자 료		
		배포일시	2020. 4. 27(월) 총 4매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교통안전복지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윤영중, 사무관 김교준 • ☎ (044) 201-3862, 3868 	
		물류정책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이성훈, 사무관 곽병철 • ☎ (044) 201-3993, 3998 	
	고용노동부	산업안전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고광훈, 사무관 김남진, 전문위원 김상현 • ☎ (044) 202-7722, 7726, 7732 	
	경찰청	교통안전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과장 한창훈, 경정 김주곤, 경감 김신권 • ☎ (02) 3150-2052, 2152, 0637 	
보 도 일 시		2020년 4월 28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4.27(월) 11:00 이후 보도 가능		

배달 오토바이의 사고를 줄여 나가겠습니다.

- ◆ 오토바이 배달원 단속 강화, 공익제보단 운영 및 교육 확대
- ◆ 배달 중개업자의 안전조치 지도, 중개업자-배달원 간 표준계약서 도입
- ◆ 오토바이 안전 캠페인 확산 및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·운영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교통안전 취약부분인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고용노동부,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「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」을 추진하기로 하였다.

○ 지난 '18~'19년간 정부는 부처 합동 “교통안전종합대책(‘18.1)”을 통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0% 감소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고,

* ('16) 4,292(△7.1%) → ('17) 4,185(△25%) → ('18) 3,781(△9.7%) → ('19) 3,349(△11.4%)

- 이러한 성과를 보다 확대해 나아가자 “2020년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(‘20.4.9)”을 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제도 개선, 시설 확충, 계도 및 단속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,

○ 코로나-19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배달 음식 주문 급증 및 배달 이륜차 운행 증가 등으로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 15% 증가(1월~4.15일 기준, 잠정 107명→123명)하여,

* 보행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4% 감소, 고령자는 약 15% 감소, 화물차는 약 14% 감소

- 금번에 이륜차를 대상으로 세부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게 된 것이다.

□ 이륜차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 대책은 다음과 같다.

① 이륜차 배달원 교통안전 관리 강화

○ 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 범규위반 지역 중심으로 신호위반·중앙선 침범 집중단속 등 이륜차 교통안전을 위한 단속을 강화하고,

- 상습 범규위반 운전자 소속 업체를 대상으로 관리감독 해태 여부 확인 후 도로교통법상 양벌규정을 적극적으로 적용해 나간다.

○ 이륜차의 신호위반, 인도주행 등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버스·택시 등 사업용차량의 블랙박스 등을 활용한 국민 공익제보를 적극 활성화 할 예정이다.

- 이를 위해 약 1,000명 규모의 “교통안전 공익제보단”을 구성하여 5.1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며,

- 또한, 일반국민의 경찰청 앱(‘스마트 국민제보’)을 통한 공익제보도 보다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.

<교통안전 공익제보단>



사업용 차량 블랙박스 등 활용



스마트 국민제보 앱 활용



이륜차 불법행위 제보

○ 신규 오토바이 배달원의 사고발생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, 현장 근무 전 실제 운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교육 장소·프로그램을 제공한다.

- 수도권*에서 코로나-19 상황을 고려하여, 시범운영('20.7, 잠정)후,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(도로교통공단 27개 시험장)할 계획이며, 교육 이수자에게는 안전모·보호장구 등도 무상 지급할 예정이다.

* 도로교통공단 8개 면허시험장(서울4곳 경기3곳 인천1곳), 교통안전공단 화성체험교육센터

○ 서울 등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* 중인 이동노동자 쉼터를 지자체와 협의하여 배달수요가 많은 상업·주거시설 인근으로 15곳까지 확대할 계획이다.

* 서울(서초, 북창, 합정, 상암), 경기(수원, 성남, 안산, 광주, 하남, 광주(1곳), 제주(1곳)

- 이를 통해 피로누적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, 쉼터에서 오토바이 안전운전 교육자료와 영상도 제공토록 할 예정이다.('20.6)

② 이륜차배달 중개업자 책임 강화

○ 배달종사자에 대한 면허·안전모 보유확인과 안전운행 사항의 정기적인 고지 등 중개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'20. 1. 16일부터 개정·시행됨에 따라,

- 중개업자가 이륜차 운전자에 대해 관련 책임을 다하도록 고용부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협력하여 적극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또한, 종사자 보호 강화를 위해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, 안전장비 대여 등이 규정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다.

○ 배달앱 안전기능 강화를 위해 이륜차 사망사고 다발지역 음성경보 안내, 안전모 보유 여부 확인 등 배달앱 탑재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배달앱 업계와 협의할 예정이다.

③ 이륜차 안전캠페인 확산 및 협의체 강화

- 안전한 배달문화 정착을 위해 슬로건*을 제작하여 주거지역 등에 현수막을 설치(20.5)하고, 배달앱 등을 통한 **공익광고**도 시행할 예정이다.

* 당신의 여유가 배달원의 생명을 지킵니다./ 조금 늦더라도 안전을 배달해요!

- 또한, 실효성있는 이륜차 안전 대책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 이루어진 **협의체**를 구성·운영(20.5)할 계획이며,
 - 협의체에서는 이륜차사고 감소방안, 홍보·교육방안, 기타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.

* 국토부, 고용부, 경찰청, 교통안전공단, 안전보건공단, 도로교통공단, 배달앱사, 배달대행업체 등

- 국토교통부 어명소 종합교통정책관은 “최근 코로나-19로 인해 배달 주문이 늘어나면서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전년 동기 대비 15% 증가하였다.”면서, “관계기관 및 배달업계와 정기적인 협의를 통해 이륜차 교통안전 대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이륜차 사망사고를 줄여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”고 밝혔다.



이 보도설명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
교통안전복지과 김교준 사무관(☎ 044-201-386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